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 내담자 관계*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태도변화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체험이다. 신뢰로운 관계에 대한 체험은 어느 상담접근에서든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담할 때, 상담자-내담자 관계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능을 한다. 다차원적 문화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서양과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가족주의, 권위주의, 인정주의와 같은 문화를 형성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아버지와 아들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자-내담자 관계도 서양에서의 그 관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을 상담할 때 상담자가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양육적 기능,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의 복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상담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기초해 부모-자녀간의 유대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한국적 상담접근인 현실역동상담에서 상담자의 주요 역할로 간주된다.

주요어 : 관계체험, 상담자-내담자 관계, 부모-자녀 관계

장성숙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01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교신저자 : 장 성 숙,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32-340-3274 E-mail : changss312@hanmail.net

상담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갖게 되는 의문은 '무엇'에 의해 내담자들이 점점 나아지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에 대한 방향 내지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함으로써 호전을 보이는 내담자도 있지만, 어떤 내담자들에게는 별다른 처치를 해준 것도 아닌데 진전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상담자와의 사이에서 안정된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상담의 본질은 '관계체험'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해석이나 정화를 위한 작업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표면에 내세우는 과업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성장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다름 아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 관계를 통해서이고, 치유되는 것도 관계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상담과정에서 교량적 역할을 해주는 안정된 관계를 내담자가 체험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Yalom, 1995). 이러한 관계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상담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은 같이했지만, 그것은 주로 내담자가 변화하는데 필요한 교정적 정서체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을 맞이하게끔 해준다는 차원에서였다. 덧붙여 내담자가 신뢰로운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것이 상담효과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동서양에서 공히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담관계를 정서적 지지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도록 활용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관계중심의 문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수립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간의 끈끈

한 관계와 유사한 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담관계가 단순한 정서적 지지 차원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근간이 가족간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그리하여 상담자는 상담관계를 통하여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관계위주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내담자 관계'는 보다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상담자가 부모와 같은 울타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로서 인식된다. 이렇게 상담자를 어른으로 바라보는 경향은 서열이나 위계에 따라 차별적 역할을 강조하는 유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부모와 자녀사이에 이루어지는 효(孝)는 우리 의식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이 조력역할을 하는 상담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문화의 대표적인 특성이 무엇이고, 이 속에서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토대로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상담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관계 기능의 확대

우리의 삶은 주위와의 교감을 통해 변화하고 유지되는 관계 자체다. 이러한 사실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담분야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진단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모든 문제의 뿌리가 관계의 취약성에 있다는 즉, 가족관계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당면문제에 대한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람이 아닌 사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 또한 뿌리가 사람과 연결된 불안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원인은 관계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상담에서 내담자를 돕기 위한 각종 방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비로소 내담자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극복해 성장을 향해 발돋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뢰로운 상담자-내담자 관계의 확립은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기존의 다른 상담접근에서도 대부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영향력을 떨친 정신분석에서는 상담자가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전이대상으로 허용하느냐에 따라 상담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여긴다. 이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억압된 적개심을 다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치료자가 강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력한 또 다른 접근법인 인간중심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비소유적이면서 온정적으로 대할 때, 내담자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면서 건강한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 다른 상담접근에서도 상담자의 말이 내담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신뢰로운 관계가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여러 상담접근들에서도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서적 지지를 통한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사람을 주로 감정적 측면에서 바라보게끔 했다. 사람에게서 정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증세라고 일컫는 대부분의

어려움이 비합리적인 정신적 힘(irrational mental forces)인 감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정이나 행위가 특정관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을 조율할 수 있는 자아의 합리성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사람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감정 못지 않게 이성의 역할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구실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 감정이 이성의 휘하에 있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다. 감정을 공감하며 지지하기에 곤란한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들이 있다.

거의 날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의 늦둥이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어떤 청년은 이제 집에 들어가기가 정말 싫다며 자취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양부모 모두 뒤늦게 재혼으로 만나 어렵게 살아왔는데, 팔십 가까이 된 아버지는 육십이 넘은 어머니를 이제 전처럼 함부로 구타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얼마 전 제대를 한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있는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다는 것이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집안, 그리고 술에 취해 풀어진 아버지의 눈동자를 접하는 순간마다 그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다고 했다. 사회진출을 앞두고 취직시험 준비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는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극에 달한 감정을 펼쳐 보였다.

내담자의 이런 하소연에서 그가 오랫동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 수궁이 간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일 경우,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그러뜨리기보다 오히려 그 감정에 타당성을 부여하고는 오히려 아버지와의 대립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출행동을 하기가 쉽다. 그러기에 상담자는 그의 괴로워하는 심정

만큼은 명확히 해야리되, 절제된 태도를 보이며 그런 감정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아버지가 지겹다고 해도 자식이 아버지를 도외시하는 행동은 우리의 사회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즉 감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도리나 의무를 능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아들인 당신이 아버지를 안 보고자 하는데 누가 그 늙은 알코올 중독자를 인간으로 취급하겠느냐는 말을 그에게 함으로써 그의 가출행동만큼은 자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은 매우 괴로워하는 것이었지만, 아들로서의 역할을 저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은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냈고 또한 자존감을 유지시킬 수가 있었다고 본다.

또 다른 예에서, 강압적인 아버지에게 형이 심하게 혼나는 것을 보고 자란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비위를 과도하게 맞추며 살아왔다고 한다.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억압하며 성장한 그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하며 행여 구속당할까봐 깊은 인간관계를 피했다. 이러한 문제로 그는 다른 어떤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억압했던 분노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면 자유로워진다는 전제 아래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거칠게 표출하고 있었다.

이 사람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다 표출하고 나면 과연 그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자식인 그가 다른 아들 아버지를 상대로 그렇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에 위배된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는 70대 노인으로 이미 몇 차례 아들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한다. 그런데 30대 후반인 그 아들은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씨름하고 있었다.

이 사례에 대해 갖게 되는 의문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대들어야 그의 분노가 풀리겠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감정의 정화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인륜을 저버리게끔 하는 방법은 곤란하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현 시점에서 주변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및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자신감을 얻지 못하는 한 그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개심에 대한 표출은 최선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계속 아버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현재 자신의 생활에 자신이 없는 비겁한 태도가 아니냐고 그에게 말했다. 이런 상담자의 말에 그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마 강조점을 달리하는 두 상담자들의 태도에서 혼란을 느끼는 듯 했다. 그러나 완전히 부인을 하지는 않고, 심사숙고를 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

이러한 사례에서처럼 내담자의 행동이 우리 사회의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옳다며 마냥 존중하는 식의 상담접근을 해서는 곤란하다. 개인의 자유로움이나 솔직함을 존중하는 서구사회의 가치와 달리 우리 사회의 가치는 더불어 사는 도리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상담접근들은 북미-유럽 문화권에 거주하는 백인 중산층(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을 겨냥한 것으로 동북아시아 문화권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장성숙, 2000, 2001). 개인을 중시하는 서구 사회의 가치는 '우리'라는 집단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구적 상담접근이 지닌 문화적 편파들을 깨닫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상담접근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자기실

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나’에 대한 확립을 강조하는 서구의 상담관을 ‘우리’를 중심으로 더 붙여 사는 것을 소중히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로서 기독교 문화와는 다른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에 대한 변별 없는 상담은 내담자를 돕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의 다차원적 관점과 한국문화의 특성

상담이 적응을 꾀하는 것이니 만큼 그것은 사람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종합예술이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 자체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해있는 환경에 대하여도 필히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서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최봉영(1997)은 정의하기를, 인간이 집단적 생존의 기본단위로서 바람직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나와 세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신념과 실천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Hofstede(1991)은 문화를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종의 정신적 정신프로그램으로 학습되는 것이며, 사람들의 반응 중 가장 일어날 확률이 많은 것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한다.

한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그 나라의 문화적 소산에 대한 기술을 나열하는 것보다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입장을 전제로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Hofstede는 53개국(50개국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경험

적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문화차이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각종 문화들을 측정할 수 있는 4개의 문화차원을 제안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 Bond(1987)는 일명 유교적 역동성이라는 차원을 추가해 한 사회의 절대적 미덕을 다루었다. 이러한 4~5개의 차원에 따른 분류는 한 문화에 대하여 다차원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비교에서 가장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는 하나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위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평등문화 대 불평등문화’에서는 27위로 중간에 위치하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느냐에 따른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차원에서는 43위로 상당히 강한 집단주의 문화를 이루고 있고, 자기주장적이나 아니면 겸손이나를 의미하는 ‘남성성문화 대 여성성문화’에서는 41위로 매우 여성성이 강조되는 사회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식인 ‘회피문화 대 수용문화’ 차원에서는 16위로 불확실성 회피경향이 꽤 높은 나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 얼마나 멀리 내다보느냐하는 ‘장기지향 대 단기지향’ 차원에서는 23개국 중 5위로 장기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나라로 나왔다(Bond, 1988b).

이러한 다차원적 관점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한마디로 기술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래도 다차원적 차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의 불평등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적 거리는 그렇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의존관계를 나타내면서 집단의 힘을 존중하는 집단주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경쟁적인 사회역할보다는 겸손하며 협동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확실성 회피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확실하거나 미지의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꽤나 심해 이질적인 것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상당히 감정적인 경향을 띤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로서 끈기를 갖고 지위에 의한 인간관계상의 서열 정립과 엄치를 아는 것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차원 분류에서 특히, 심리학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체계화시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하여 Triandis(1995, 1998)는 수직-수평 차원을 도입했다. 그리하여 인간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평등성을 강조하는가에 대한 범주를 추가해 4개의 분류 틀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을 정교화 시켰다. 이 이론은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문화 특성을 논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이러한 4개의 분류 틀에 따르면, 동북아시아권에 속해있는 우리 사회는 수직적 집단주의를 이루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소득증대로 우리나라도 점차 수평적 개인주의 사회로 옮겨가며 특히, 지난 30년 동안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는 한다(한덕웅, 2003). 그러나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정서나 관습은 사실 그리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집단주의적 문화를 지닌 사회라고 본다. 즉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배척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체면이나 눈치를 발달시킨다던가, 내·외집단에 대한 차별을 둔다던가, 윤리나 규범이 보편적으로 정의되기보다 상황에 따라 규정된다던가, 인간관계에 민감한 나머지 말을 아끼며 유보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던가, 갈등 해소 방법을 상대의 의무나 책임에 호소한다던가, 동기의 발현이 타인 중심으로 동정심이나

수치심과 같은 정서를 발달시켰다던가 능력자보다 인격자를 이상적인 상으로 여긴다던가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이수원, 1995; 이수원, 이현남, 199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직적 집단주의를 구성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특성을 세 가지로 집약해 정리해본다.

가족주의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지닌 가장 주된 특성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다. 과거에는 우리가 대가족제도 속에 살았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대가족제도와 핵가족제도가 절충되어 있어 핵가족에 가까운 직계가족제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가 성장한 뒤 부모가 거의 권위를 갖지 못하는 서양의 핵가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결혼한 뒤에도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 부모의 권위는 여전히 막강하다. 이러한 가족중심의 제도에서 혈통위주의 ‘우리’라는 집단이 만들어졌고, 이 안에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즉 ‘우리’의 결속을 해치지 않는 한, 그 안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옹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면서 혈연, 학연, 지연 등 극심한 연고주의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뿌리 깊은 가족주의는 한국적인 집단주의의 원형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권위주의

우리 사회가 권위나 권력에 대하여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은 앞서 살펴본 가족주의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로 한 가부장적 제도는 권위주의의 원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윗사람 중심의 사회로 서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것은 사회에 나가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우선 나이부터 따지면서 위아래를 정하는 모습에서 배어 나온다. 초면에 나이를 묻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학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라도 나이를 확인하는 습성, 그리고 연장자와 연하자를 세분화하는 다양한 호칭 및 존칭어가 우리에게 있다. 이 속에서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체면을 차리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눈치껏 윗사람의 속을 헤아려주는 눈치문화를 발달시켰다(최상진, 김기범, 2000). 이러한 체면 및 눈치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위아래를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것을 강조하며 ‘난 사람’ 보다는 ‘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한규석, 최송현, 2001).

인정주의

한국인의 속성을 거론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이다. 우리는 고운 정 못지않게 미운 정을 갖고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함을 유별나게 발달시킨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이지적이거나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한국인에게서 인간답다는 의미는 풍부한 감정을 가지되 다소 어리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최상진, 2000). 우리 사회는 정이 많아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상실하고 지나치게 사적인 관계에 함몰될 가능성도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우리의 모자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응석이나 떼쓰기와 같은 현상은 공적인 것을 기피하며

비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또 다른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는 한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서운함이 한 단계 더 발전해 빠치는 과정을 거쳐 응어리가 되면 마침내는 원한에 이르러까지 된다. 응어리가 자기 자신에게 맺히면 한이 되고, 밖을 향해 맺히면 원이 된다고 한다(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이러한 감정의 특징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핏병의 유래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듯 한국의 문화는 가족을 중심으로 아버지인 가부장의 권위를 강조하며, 그 속에서 끈끈한 인간관계를 발달시켰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문화적 정체감을 이룩하기 위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토속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화적 정체감에 대한 확립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학문의 식민지라는 불명예로부터 탈피하는데 필수적이다.

유교의 영향과 우리 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인생관, 세계관, 또는 가치관을 포함하는 문화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에는 종교적인 영향이 짙게 깔려 있다. 종교란 모름지기 한 사회에서 문화적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회 역시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최준식, 1998).

한국사회에는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다. 다양함에 있어서는 단연코 미국이 으뜸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보기 드물게 세계의 주요 종교가 고르게 그 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수많은 종교가 들어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종교는 유교다(한덕웅, 2002).

우리 삶의 기저를 이룬 유교의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짚어 보아야 할 것은 ‘유교가 종교나 아니면 철학이나’하는 문제다. 흔히 유교를 윤리 내지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유교가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굳이 유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교가 절대적인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 실용적 윤리기준에 교훈을 주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이미 다른 종교를 신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정의가 동양과 서양에서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유교가 과연 종교적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진부한 논쟁에 불과하다. 사실, 유교가 지닌 최대의 강점은 그것이 어떤 내면세계나 초월적인 것에 비중을 두기보다 우리가 실존하는 사회 및 생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유교의 가르침은 그 어느 것보다 유용하고도 풍부한 자원을 상담 분야에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유교는 불교나 기독교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간 세계적 종교는 되지 못했지만,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막강하다. 정치제도, 사회관습이나 규범, 교육제도 및 가치관에 속속들이 배어있는 틀이 바로 유교적 영향이기 때문이다. 근 500년 동안 조선은 세상에 들도 없는 가장 유교적인 국가로서 유교는 한국인들의 의식구조를 비롯한 인간관계나 삶의 형태에 깊숙이 영향을 미쳤고 한국사회의 문화를 결정했다. 우리의 이러한 유교적 의식구조 및 삶의 형태에 서양문물이 유입되면서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불과 반세기전이다. 그러나 한번 형성된 문화는 단

시간 내에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 본 우리 문화의 몇몇 대표적인 특성들도 모두 유교적 영향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다. 아무리 타종교인이라 해도 한국 사람인 이상 그러한 문화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유교사상은 어떤 것인가. 불교사상을 한마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고 일컫는다면, 여기에 비유하는 유교사상은 수기 안인(修己 安人)으로 우선 스스로를 닦고 그 닦은 바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마음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사단(四端) 즉, 인(仁), 의(義), 예(禮), 지(智)를 따르고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인(仁)의 실천을 강조하는 유교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인(仁)은 유교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다른 덕목의 완성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인(仁)은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아적인 나를 극복하고 공동체적인 규범인 예(禮)를 서로 잘 지켜 편안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극기복례(克己復禮)에서 극기(克己)가 자기 인격을 닦는 수기(修己)의 측면을 나타낸다면, 복례(復禮)는 실천을 통해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인(安人)의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예(禮)에 있어서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형화시킨 사회규범으로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이다.

유교의 가장 중심 개념인 인(仁)에 대하여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유교를 인(仁)의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실천적 차원의 예(禮)에서의 중심 개념인 효(孝)의 가르침이라고 보아야 한다(최준

식, 1998).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은 다름 아닌 효(孝)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유교에서는 유교원리의 시발점인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하는 효(孝)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바로 여기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기본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나아가 모든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윤리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형성에 가장 영향력을 떨친 이러한 부자관계가 긍정적인 면모만 지닌 것은 아니다. 그것의 폐단으로는 가부장적 혈족중심의 집단주의를 형성하면서 내 가족 우선주의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 한국인의 고질적 병폐인 내집단과 외집단을 가르는 편파적인 태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따라서 대개의 한국인은 가족개념이 유달리 강한 반면 사회의식은 약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과도한 획일성, 경직성, 또는 형식주의도 그 폐단의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효(孝)는 우리 민족이 지녔던 드높은 생활철학의 중심개념으로서 여전히 사회윤리를 구성하는 근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그 개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상담관계에서의 상담자 역할

아버지와 아들 즉, 부모-자식 관계가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또한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서양에서는 상담자가 심리적 갈등이나 문제해결을 돕는 전문가로 간주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상담자가 전문인인 동시에 삶에 대하여 자기보다는 눈이 밝은 어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장성숙, 2002). 그렇기 때문인지 실제 상담상황에서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부모와 같은 어른의 위치에 놓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모습을 접한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나 갈등에 대하여 보다 지시적으로 접근해주시기를 바라는 편이다(박현경, 2003). 따라서 조언이나 충고를 바라는 이러한 것을 전이로 규정하거나 의존적 태도로 여기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오히려 내담자의 그러한 경향성을 우리의 현실로 인정하고, 그것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오히려 그런 내담자의 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그 동안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심리적인 갈등이나 증상에만 주로 역점을 두면서 그 자체만 해결하려 했지, 대외적이거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했다(장성숙, 2001).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상담자에게 해결방안이나 조언을 기대하는 내담자의 요구에 현실적으로 응수하지 못하고, 그러한 요구는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 상담자가 갖고 있는 신조 때문에 당면한 갈등이나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내담자 자신이고, 상담이란 내담자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뿐이라는 상담관을 상담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가 그 이상 관여하는 것은 내담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아무래도 독립, 자유, 자율, 선택 등을 강조하는 서구 사회

의 가치에 부합되는 것이지, ‘우리’라는 결속을 강조하며 융화, 양보, 겸손, 절제 등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는 잘 맞지가 않는다(이수원, 1995).

둘째, 다름 아닌 상담자의 역량에 관한 것으로 자신감의 미비에서 오는 일종의 회피적 태도 때문이라고 본다. 내담자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일로 도움을 청할 경우, 상담자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내담자가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어렵다하여 그저 과거나 원인에 대하여 막연하게 이야기시키거나 아예 회피해버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상담자가 역량이 있으면 있는 만큼 내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는 상담자상은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는 현실에 눈이 밝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적응을 돕는 제 2의 부모와도 같은 사람이다. 상담자가 이러한 부모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구적 가치에 기초한 상담관을 넘어서서 역량부족에서 오는 안이한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다 다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내담자를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마냥 방치하여 도리어 피해를 주고 만다.

여기에서 상담자가 취해야 할 제 2의 부모역할이란 내담자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일찍이 부모가 했어야 할 지도편달을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가져다 준 개인주의와 능력위주의 교육관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자녀들은 가정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태도를 제대로 익히지 못해 곳곳에서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이것에 대한 처방책으로 그 동안 우리 사회

에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널리 보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모교육’에만 치중했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했다(이수원, 1996).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자기주장적이 되기는 했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적 규범이나 기준을 익히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젊은이들을 상담할 때 상담자는 실제 부모들이 놓친 사회화 교육을 해주는 어른역할까지도 해야 한다. 즉, 주어진 자기 자리에 걸 맞는 처신을 하도록 일러주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 상담자는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엄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상적인 어른의 상은 엄부자모(嚴父慈母)로 상담자도 그렇게 따듯하면서도 엄정한 모습일 수 있을 때 내담자를 최대한으로 도울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담자의 이러한 교육적 즉, 양육적 역할만으로는 내담자를 최대한으로 돕는데 충분하지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가족관계가 그 중심이 되는데, 이 속에서 부모는 자녀를 보살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한다. 이러한 역할 및 도리가 우리 사회에서의 사람구실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형성된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통하여 내담자가 부모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적극 도와줄 때, 비로소 상담효과는 정점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즉, 탄탄한 상담관계를 토대로 내담자가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해 주는 것이 내담자를 돕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일종의 근원으로 거의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신감은 자기가 더 이상 초라하거나 왜소한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에서 비롯하는데, 이것의 고취는 부모에 대한 발견을 통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어느 누구에게든 울타리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내담자는 관계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다 영속적인 지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복원은 상담효과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작업이 썩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형성된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기초해 관계체험의 영향력을 부모-자식 관계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설사 부모에게 쌓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사이는 그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이미 많은 것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어지는 끈끈한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자의 이런 시도가 내담자에게 오히려 중압감을 주거나 부작용을 낳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즉, 이러한 시도가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상태, 문제의 종류, 작업의 시기, 그리고 개입의 방법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 없이 시기상조하게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시키려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억압시키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이러

한 작업은 한국인을 위해 개발한 현실역동상담 접근에서 이미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문제의 실체나 억압된 감정을 선명하게 의식시킨 다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희석하도록 분출시키기보다 수용하도록 하는 이러한 작업은 일종의 반전과도 같은 것으로 본인도 살고 부모도 사는, 그리하여 다 함께 살도록 하는 효과를 거둔다. 그것이 과거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로 일깨워주든 아니면 앞으로 그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 마음을 써 줄 존재라는 것으로 일깨워주든, 그것은 내담자의 제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시에 심리적 빈곤감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갖게 해주는 극적 효과는 실로 대단하다.

맺음말

결국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주위와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이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존재로서 내담자가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히 그 사회의 가치에 부합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에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배제된 상담관을 가지고 단순히 심정에 초점을 맞춰 정서적 이완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나라로서 서구 문화와는 여러 차원에서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가족중심의 다양한 문화를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취하면서 독립된 ‘나’보다 관계적 존재로서 ‘우리’라는 개념을 발달시켰고, 그 속에서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에 손상 입히는 것을 금물로 여기며 정한(情愔)의 국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끈끈한 인간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다름 아닌 내담자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상담자는 서구적 상담 접근의 한계에 눈을 뜨고, 우리 문화의 가치기준에 부합되는 접근을 해야 한다. 즉, 우리 사회의 규범이나 상식에 눈이 밝아야 내담자를 제대로 도울 수가 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에는 무엇보다 효(孝)개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를 따르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여기듯, 부모 또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 저변에 깔려있는 이러한 의식 때문에 내담자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상담자를 대등한 관계의 전문가로 보기보다 어른과 같은 윗사람으로 여기며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짙다(김계현, 2002; 금명자, 2001).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상담자-내담자 관계는 서양에서의 그 관계보다 훨씬 끈끈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러한 상담관계를 토대로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즉, 내담자에게 교정적 정서체험이 가능하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제대로 처신하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어른으로서의 양육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부모-자식 간의 본유적 가치에 대해 눈뜨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특히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기초하여 부모에 대한 재조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상담효과의 절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그 의의는 매우 깊

다. 대부분의 내담자가 부모에 대한 효(孝)개념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생명체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그가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계도에 오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민의 정은 승화와 같은 것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상담에서 겨냥할 수 있는 최고의 고지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식 관계가 지닌 연대감에 대한 복원은 내담자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다. 자기에게도 부모가 있다는 인식은 당당함과 직결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내담자가 주체적이 되도록 하는 최대의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반 역할을 상담자가 예민하게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할 때 한층 한국인을 위한 상담접근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계현 (2002).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학지사.
- 금명자 (2001).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및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29-546.
- 박현경 (2003).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 치료적 요인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청구논문.
- 이수원 (1995).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넘어서: 「문화와 인지: 타인 이해의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한국심리학회 동계심포지엄: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188-195. 서울: 한국심리학회.
- 이수원, 이현남 (1993).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61-80. 10월. 서울대 교수회관.
- 장성숙 (2000). 현실역동 상담: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 장성숙 (2001). 현실역동 집단상담: 우리문화의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18.
- 장성숙 (2002).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47-561.
- 최봉영 (1997). *한국문화의 성격*. 서울: 사계절.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정(미운 정 고운 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03-222.
- 최준식 (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 최준식 (1998).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서울: 사계절.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규석, 최송현 (2001). 한국인의 사람 판단차원: 된 사람과 난 사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29-234.
- 한덕웅 (2002). 한국문화는 유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54-260.
- 한덕웅, 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49-67.
- Bond, M. H. (1987). *Chinese culture connection*. Hongkong University Press.
- Bond, M. H. (1988b). Finding universal dimensions of individual variation in multicultural studies of values: The Rokeach and Chinese value surve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009-152.
- Hofstede, G. (1991).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차재호 ·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view Press.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18-128.
-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United States: Basic Books. 최해림 · 장성숙(역).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원 고 접 수 일 : 2003. 3. 25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17
게 재 결 정 일 : 2003. 6. 7

The Korean Cul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 and Client in Reality Dynamic Counseling

Sung-Sook Ch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experience of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 and cli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ttitude change. It is considered as a major factor in any counseling approaches. However, it is more important in Korea than in Western countries. Following th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Korean culture is quite different from Western culture and develops its unique characteristic: familism, authoritarianism, humanism. Since there is comparison between the relationship of counselor-client and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in Korea, counselor might guide a client and facilitate the innate value of his parent as well as providing emotional support for counseling effect. Above all, facilitating the value of parent is quite important so that a client might to get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and it is necessary for a Korean because the concept of filial piety between father-son(parent-child) is the basis of Korean culture.

Key Words : the experience of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of counselor-client,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